

인도 정부, 멀티브랜드 소매업 분야 개방 재추진

■ 최근 인도 정부는 멀티브랜드 소매업 분야에 대한 FDI를 51%까지 허용하는 안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함.

- 2011년 11월 멀티브랜드 소매업 분야에서의 외국인지분소유 한도를 51%까지 허용하는 안이 내각에서 승인되었지만, 인도 정부는 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그 다음 달인 12월 본 안을 철회하였음.
- 인도 정부는 2012년 8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될 정기국회(monsoon session)에서 본 안을 통과시켜 늦어도 9월 둘째 주에는 발표할 것이라 밝힘.

■ 인도 정부는 유통인프라 개선, 식품물가 안정 등을 위해 지난 몇 년 간 소매업시장 개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으며, 이번 멀티브랜드 소매업 개방 재추진을 위해 중앙정부는 지난 몇 달 간 주정부와 지속적인 정책협의를 진행하여온 바,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.

- 인도의 냉동 체인 설비 미비 등 열악한 유통인프라로 인해 농산물의 35~40%가 운송 중에 망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, 2012년 1사분기(4월~6월) 7%이상을 기록한 인도 인플레이션에의 식품물가인상률(10.5%, '12.4월)의 기여도가 약 40%로 높게 나타남.
- 동 개방관련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인도 정부는 실질적인 정책집행여부를 각 주에 자율적으로 맡기고, 멀티브랜드 소매업 분야 외국인투자 최소금액 약 1억 달러 중 적어도 절반은 냉동 체인, 물류설비 등에 투자하도록 할 예정임을 강조하며 야당이 집권하는 주의 주지사(chief minister)들을 대상으로 설득해옴.

■ 인도 정부는 2012년 9월안에 멀티브랜드 소매업 개방뿐 아니라 단일브랜드 소매업 관련 외국기업 진출 조건 완화 등을 포함한 FDI 관련 주요 사항을 발표할 것인 바, 인도 소매시장의 방대한 잠재력¹⁾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은 향후 인도 소매업 동향에 계속하여 주시할 필요가 있음.

- 2012년 1월 인도 단일브랜드 소매시장이 전면 개방된 이후 인도에 약 30억 달러 상당을 투자할 계획임을 발표한 이케아(IKEA)는 인도 정부에서 제시한 현지 중소기업에서 30% 소싱 등의 일부 진출 조건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였고, 인도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밝힘.

〈출처: Business Standard, Economic Times 등〉

(정혜원 연구원)

1) <참고>

〈참고〉

인도 소매업 현황

구 분	내 용
규모	연 매출액 4,100억 달러(한국의 약 2배)로 2015년 8,040억 달러에 이를 전망(Q411 BMI India Retail Report)
성장율	연 25~30%
세계시장 비교	세계 제5위
구조	90% 이상이 영세한 재래식 소매점(unorganized)으로 향후 조직화된(organized) 기업형 소매유통 시장규모는 2012년경 약 400억 달러에 이를 전망

자료: Q411 BMI India Retail Report, Dow Jones, 현지언론 등